

상무시민공원에 ‘독립운동기념탑’

9억4000만원 투입 내달 착공 내년 4월 완공

광주출신 독립운동가 1100여명 이름 새겨

광주 상무시민공원에 높이 15m짜리 독립운동기념탑이 건립된다.

광주시는 “광주출신 항일독립 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9억4000만원(국비 3억원, 시비 6억4000만원)을 들여 상무시민공원에 독립운동기념탑(조형물)을 오는 12월 착공해 내년 4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기념탑에는 광주출신 독립운동가 1100여명의 이름이 새겨지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민족열사의 이미지를 표현한 조형벽이 만들어진다.

시는 또 그동안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진행했던 3·1절과 8·15광복절 기념식 장소를 독립운동기념탑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관련 부대시설과 조경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현상설계공모에 참가한 10개 업체의 작품 중 (주)나루의 ‘평화의 꽃-피어오르라’(조감

도 참조)를 선정했으며,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평소 시민 이용이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상무시민공원을 건립장소로 결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독립운동의 소중한 희생이 자양분이 돼 맺은 결실 즉, 오늘날의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꽃피우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황성권 광주시 복지정책담당관은 “이번 기념탑은 광주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독립운동에 몸바친 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독립운동기념탑 조감도

염주운동장에 종합체육관·장애인체육센터

내달 업체 선정... 254억·76억 들어 내년 말 완공

태권도·레슬링·탁구장 등 다목적 체육관으로

광주 염주운동장에 종합체육관과 장애인체육센터가 들어선다. 내년 말 완공 목표로 다음달 착공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염주운동장 내 국민생활관 뒤편에

종합체육회관과 장애인체육센터를 내년 12월 완공목표로 다음달 착공한다.

25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종합체육회관에는 광주시체육회 사

무실을 비롯한 태권도, 레슬링, 탁구장, 헬스장, 스쿼시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선다.

또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체육센터는 총 76억원이 투입돼 장애인체육회 사무실과 다목적체육관, 건강검진실, 체력측정실 등이 만들어진다.

시는 다음달 종합체육회관과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전남 지자체·공공기관, 농공단지 물품 구매 인색

총 57곳 중 12곳만 구매... 그나마 10%대 불과

전남지역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 구매에 아주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전남협의회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농공단지 물품 구매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전남에는 총 57개의 농공단지에 901개사가 입주해 있지

만 관할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농공단지 제품 구매율은 기관 물품구매 총액의 10%대에 불과하다.

전남협의회가 전남 22개 시군 및 시군 출연 기관, 교육청, 광주시내 일부 지자체 출연 기관 등 총 57곳의 지난해 농공단지 제품 구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12곳만이 구매에 협조했다.

나머지 45곳은 실적이 아예 없거나 구매액이 극히 미미했다.

12곳은 영광군(30억원), 무안군(75억원), 해남군(49억원), 화순군(49억원), 순천시(40억원), 신안군(47억원), 장흥군(39억원), 완도군(10억원), 구례군(110억원), 고흥군(29억원), 곡성군(76억원), 무안군교육청(3억원) 등이다.

이중 구례·고흥·곡성 등 3곳은 구매율이 30%를 기록했고 나머지 9곳

은 10%대에 불과했다.

해당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지역 경제의 뿌리인 농공단지만 조성해놓고 입주업체들에 대한 판로 지원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전남협의회는 이와 관련 13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제1차 전남농공단지 공공구매 지원 간담회’를 열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구매 협력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방 노후산단 구조개선 본격화

국회 산자위 정책협의회... 하남·평동·소촌산단 등

광주 하남, 평동, 소촌 산업단지 등 지방의 노후 산단 구조개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의원 등 전국의 산업단지가 위치한 국회 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산업자원부는 12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정비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 개선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 실태를 확인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지방의 산업단지 활성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드러나 보다 면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정책협의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하고 활성화하는 일이 막근

해 정부가 최대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바탕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을 신규개발 중심에서 기존의 노후산단 개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투입 대비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가장 합리적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김재홍 차관은 “노후 산단 활성화를 위한 의원들의 정책 제안에 동의하고, 특히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국토부 등을 적극 설득해 노후 산단 개선의 정책효과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전정희(민주·전북 익산을)·심학봉(새누리·경북 구미갑)·홍지만(새누리·대구 달서 갑) 등 전국의 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야 산업위원회 의원들과 산업부 김재홍 차관, 강남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

중부세,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

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부세를 걷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소폭 높아지지만 지자체별 배분 방식은 현행과 똑같이 유지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재산세에 중부세를 통합하는 등 재산세 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건행정부는 12일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입법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5억원 초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해 12월 1~15일 납부한다. 서울은 누진세율로 주택은 0.5~2%, 토지는 0.75~2%가 각각 부과된다.

중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이들과 과세요건, 납부기한,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지만 다만 부과징수권자가 주소지 등 관련 세무서에서 시·군·구 등 지자체로 바뀐다.

작년 기준 중부세수는 1조1311억원이다. /*연필뉴스



박준영 지사 美 순방... 한인타운서 간담회

투자유치와 우호교류를 위해 미국을 순방중인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플라싱 한인타운 대동연회장에서 호남향우회 및 한인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전남의 친환경농업, 해안선, 갯벌, 천일염, 은퇴자 도시와 행복마을 등을 소개하고 은퇴 후 전남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제공>

국민 92.8% “사회 이념갈등 심각”

경실련 조사, 진보-보수 갈등 가장 첨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요인 가운데 이념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갈등해소센터는 지난달 24~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공공갈등 의식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2.8%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여러 유형의 갈등 중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 이념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9.3%에 달했다. 계층갈등(86.1%), 세대갈등(62.1%)이 그 뒤

를 이었다. 센터는 “이전에는 이념갈등보다 계층갈등이 더 심각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며 “이번에 이념갈등이 계층갈등을 앞지른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국회 등 11개 집단 가운데 갈등을 일으킨 책임이 크지만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집단으로 국회, 언론, 법조계, 재계가 순서대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의 갈등해소 노력도를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0.1%로,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 39.9%보다 높았다. /*연필뉴스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최대 ~80%

금리는 낮게▼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산다, 친환경 나비의 고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프론트(신입 및 경력) 남·여 0명
 - 홀서빙(신입 및 경력) 남·여 0명
 - 코스관리(신입 및 경력) 남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골프장 유경험자 우대
- 급 여**
 - 연봉제(면접 후 결정)
- 복지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 포상, 단세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
 - ※ 이력서 우측상단 지원분야 및 희망연봉 기재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서당매길 242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임평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062) 651-6581

010-3690-7790

인턴사원 모집공고

정보통신산업의 선두주자 “큰다 빈출입” 대신정보통신에서 인턴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부문	인원	전공 및 우대사항	근무지역
IT부문	20명	● 컴퓨터관련, 정보처리관련 전공 우대 ● 전산계산, 전자통신, 정보통신 관련학과 전공 우대 ● 전파, 통신, 전자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울지역 전남광주 (희망지역 기재)

공 통 사 항

- 2014년도 졸업예정인자
- 인턴기간 3개월(근무성적 우수자 정규직 전환)
- 월급여 110만원(중식제공)
- 4대보험 가입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

▶제출서류

가. 이력서 사진부착(일반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A4 2매 이내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1. 22(금) 접수분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jeon@dsic.co.kr)
다. 문 의 처 : T. 02-2107-5011(홈페이지 : www.dsic.co.kr)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대인정보통신주식회사